

# TRANSLATION

## We must treat offshoots from the ruined dynastic family with respect.

Sungwoon KANG Seodamun-gu, Seoul

Let me comment on our own prejudice about the Imperial Household of the Korean Empire (Chosun Dynasty).

I think that contemporary Koreans have been a tendency to degrade the dynastic family deliberately sinc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For example, they used to pay the highest respect to the British Crown Prince, honoring him as 'His Imperial Highness'. But they often forget to show that kind of respect to their own offshoots from dynastic family. It is manifest absurdity when I consider our time-honored tradition that we pay unsparing respect to predecessors.

I think that kind of abasement resulted from Japanese colonial policy as well as our own misapprehension about basic courtesy or tradition. It is time to think of contemporary meaning of the existence of the dynastic family in Korea apart from its despotic and feudal meaning up to now.

A hard fact which compels offshoots of the Chosun Dynasty to conceal their true identity should be changed. Medias and intellectuals should inform people of Korea of the truth on independence movement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by His Late Majesty Emperor Gwangmu (Kojong) who was poisoned to death in 1919. We have to remember his loyalty to his people.

And I urge my fellow Koreans to reconsider the matter that there are more sympathizers in Japan who express compassion toward our ruined dynastic family than in Korea. We also should encourage volunteers who reevaluate former Korea and the Imperial Household to do the best, and show respect to His Highness Prince LEE Soek who is a leader of that movement. All Rights Reserved. Reader's Opinion, Chosun-Ilbo, October 29, 1994

**조선황실에 예우 있어야**

20일자 조선일보를 읽고란에 실린 「'군주 제부활' 시대착오적」이라는 남근형씨의 의견을 읽고 우리 자신이 황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우리 황실을 격하시키려 노력하는 것 같다. 남의 나라 왕세자가 오면 「英皇太子殿下 來臨(영국황태자 내한)」이라 하면서, 우리 황실에 대한 경칭은 무시하는 실정이다. 신문지상의 「高宗(고종) xx하다」, 「閔妃(민비)」, 「大院君(대원군)」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光武大皇帝陛下(광무대황제폐하)」, 「明聖皇后閔氏陛下(명성황후인씨폐하)」, 「興宣大院君殿下(흥선대원군전하)」가 정칭이다. 전임자를 예우하는 우리의 좋은 전통에 비취볼 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너무나 신분평등만을 외쳐온 나머지 최소한의 예의와 전통을 무시하고 「황실」, 「폐하-전하」라 칭하면 마치 자신이 피지배층이 되는 듯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제식민정책의 조선황실 격하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는 신분적, 통치권자적 개념이 아닌 현대적 의미로 황실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이다.

재산물수는 물론이고 이 명에까지 짓밟힌 채 일부 황손을 제외하고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황손이라는 사실조차 숨기게 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마땅하다.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親日(친일)의 근원이라 잘못 알려진 皇室史(황실사)에서 최근에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저 위대한 「皇室獨立運動史(황실독립운동사)」는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일국의 군주로서 처신에 한계가 있으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抗日(항일)을 지휘하다가 일제에 독살되신 光武帝陛下(광무제폐하)를 생각하면 숙연해질 뿐이다.

국내에서보다 일본에서 조선 황실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보이는 이가 많은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또한 황실복원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과 李錫(이석)전하께 격려와 박수를 울리며 이 땅에 황실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은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강성운·서울 서대문구 충정3가>

# TRANSLATION